

전북교육청 ‘햇빛이음학교’ 실패 전철 밟나

15개교 태양광 설치에 24억 투입
폐교 위기 학교 포함 혈세 매몰 우려
11개 지역청 분산 발주 투명성 논란

(3) 취임 두 달을 맞은 천호성호가 각종 인사 논란과 교육행정 파행, 사법 리스크, 공교육 사유화 논란 등 주요 문제점을 10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햇빛이음학교’ 사업에 따라 도내 초·중·고 15개교에 23억여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본격화한다.

교육부의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학교 옥상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구축해 공공요금 부담을 낮추고 탄소중립 교육 공간으로 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화재 위험과 유지관리 대책 부재, 소규모 학교 예산 매몰 우려에 분산 발주에 따른 유착 가능성까지 겹치며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전주, 익산, 무주, 장수, 임실 등 도내 15개 학교(총 710kW)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

예산 산출기초에는 1kW당 333만 원(시설비 293만 8,000원, 설계비 21만 2,000원, 감리비 18만 원)의 단가가 일괄 적용돼 학교당 6,660만 원에서 최대 1억 6,650만 원씩 투입된다.

학령인구 절벽 속 ‘예산 매몰’ 위험이 핵심 쟁점이다.

교육부는 당초 준립 기반을 고려해 전



도교육청의 15개교 ‘햇빛이음학교’ 사업이 줄속 추진과 안전 대책 미흡 등으로 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사진=전북교육청>

국 소규모 학교 2,274곳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전북 대상지에는 전교생 50~70명 안팎인 완주 삼우초(50여 명), 무주 설천고(60여 명), 익산 여산초(70여 명) 등 먼 단위 학교가 대거 포함됐다.

도내 200여 개 학교가 전교생 30명 이하로 폐교 위기인 상황에서, 수년 내 통폐합될 경우 고정 설비 방지와 철거비 발생 등 혈세 낭비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사노동자 정재석 위원장은 “도내 전교생 3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0개에 달해 언제 폐교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폐교 위기 학교에까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안전 관리 공백과 사후 유지관리 예산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인천과 제주의 학교 옥상 태양광 화재 사고를 들어 안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설치비만 반영됐을 뿐 인버터 교체나 옥상 방수 등 유지관리 예산이 전무하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장 여건과 동의를 무시한 강행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관리 책임과 비용만 학교로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1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쪼개 배부한 ‘분산 발주’ 방식 역시 논란이다.

본청 차원의 통합 관리망 없이 학교

당 1억 원 안팎으로 분산되면서, 과거 충북·전남 등 타 시·도 교육청에서 불거진 ‘맞춤형 스펙 알박기’나 유착 비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수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 위험이 큰 만큼 입찰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안전망 확보와 사후 관리, 발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과거 타 시·도의 정책 실패와 비리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어떤 보완책과 검증 시스템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민 기자

이 대통령 지지율 5%p 급락 42.8%로 취임 후 최저치 경신

KSOI 긍정 42.8%·부정 52.5%
갤럽 조사는 긍·부정 45% 동률
경제·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높아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21일 [KSOI]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2주 전보다 5.0%포인트 급락한 42.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7%포인트 상승한 52.5%로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경제회복(19.1%), 내란세력 척결(16.1%), 국민통합(13.9%), 외교안보(10.1%) 순으로 지적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반 상승했다. 민주당은 2주 전 조사보다 1.4%p 오른 42.5%, 국민의힘은 1.4%p 오른 32.0%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 결과 긍정과 부정 모두 45%로 나뉘었다.

2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이재

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45%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전주 대비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낮고, 긍정평가는 1%포인트 높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28%), ‘경제/민생’(12%), ‘국방/안보/대북’(7%), ‘전반적으로 잘못된 다’(6%), ‘독재/독단’(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4%), ‘감찰 권한 축소’, ‘공정성 부족’, ‘과도한 복지/민생 지원금’, ‘통합·협치 부족’, ‘외교’(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각각 2%,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다.

[KSOI]의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갤럽]의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관광 캠페인, 공공PR대상 ‘최우수’

‘좋은 건 한 단어로 충분히’ 캠페인

전북도는 전북관광 광고 캠페인 ‘좋은 건 한 단어로 충분히’가 ‘2026 대한민국 공공PR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고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공공PR대상은 공공영역의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시상으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상으로 전북의 관광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캠페인의 기획력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인정받았다.

‘좋은 건 한 단어로 충분히’ 캠페인은

전북의 관광 매력을 ‘맛·멋·밤·쉼’ 네 가지 키워드로 압축해 지역 곳곳의 관광자원을 새로운 경험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군산 단팔뚝은 ‘맛’, 전주 천년한지는 ‘멋’, 남원 광한루원 야간경관은 ‘밤’, 고창 황룡석도서관에서의 여유와 휴식은 ‘쉼’으로 연결해 전북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 경험을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관광지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디를 갈 것인가’보다 ‘전북에서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의 숨은 관광자원과 체류형 관광 등 변화하는 여행 흐름을 반영해 개별 관광지를 넘어 전북 전체를 하나의 여행 목적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구성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국비 확보 ‘총력’

전문단지·가공시설 공모 대응 발걸

전북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조사료 재배 규모화를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늘리고 가공·유통 기반을 확충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조사료 전문단지’와 ‘가공·유통시설’로 나뉜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광역단지 ▲특화단지 ▲중소단지 ▲중자단지 ▲논 하계조사료 특구 등 5개 유형이다.

전문단지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사일리지 제초비와 기계·장비, 종자 구입비, 퇴·액비 등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배지보다 일부 사업의 국비 보조비율이 높고 자부담이 경감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가공·유통시설 분야는 국내산 조사료를 활용하는 TMR(완전배합사료) 가공시설과 유통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계와 시설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신규 시설의 경우 30억원 이내, 기존 시설 보완은 9억원 이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 TMR 가공업체 등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 8월 말까

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도에 제출하고, 도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오는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서류·발표심사와 종합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도는 지난해 공모에서도 전국 조사료 전문단지 신규 선정면적 1,000ha 가운데 40%인 399.8ha를 확보했다. 정읍 친환경 들녘영농조합법인이 특화단지 230ha, 김제 동진강낙협이 광역단지 169.8ha에 각각 선정됐다.

/장정철 기자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2026. 9. 10.(목) ~ 13.(일) | 장수읍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

9월 10일(목)

대학가요제 리턴즈

샌드 페블즈

옥스80

9월 11일(금)

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김연자 손빈아 유니스

배기성, 정윤영

9월 12일(토)

민경훈 먼데이 키즈

뮤즈그레인

9월 13일(일)

박현빈

오로라

주최·주관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 미래산업 피지컬AI·로봇 ‘투트랙’ 시동

‘제조 혁신’ 피지컬AI 육성 본격화
새만금 로봇공장 중심 생태계 구축
농기계·상용차·조선AX 전환 가속
기술·실증·인재양성 전주기 지원

전북도가 피지컬AI와 로봇 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의 양대 축으로 육성에 속도를 낸다.

지난 21일 도에 따르면 피지컬AI는 현실 환경에 직접 작용하는 차세대 AI 기술로 로봇·자율주행 등 자율시스템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실제 행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조업이 자동차·농기계·건설기계에 집중된 전북으로서는 주력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인 셈이다. 특히 도내 제조기업은 디지털 전환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산업 재편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피지컬AI를 통한 제조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로봇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된다.

지난 2월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 4,000억 원 규모 로봇 제조공장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주변에는 협력사 상생형

임대공장과 기업성장센터 등 동반 인프라도 조성된다. 이에 맞춰 산업부와 연계해 2,400억 원 규모 ‘K-로봇 피지컬AI 실증공유센터’ 구축을 추진해 로봇과 핵심부품의 개발부터 실증, 시험·인증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자동차부품 기업이 로봇부품 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며 정부 ‘5국3특’ 성장엔진 선정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북이 거점으로 꼽히는 배경에는 탄탄한 제조 기반이 있다.

도내 농기계 산업은 TYM(익산)·LS엔트론(완주) 등 215개사가 집적해 2,020명이 종사한다. 이들 기업이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확보하고 올해 무인화 4단계 출시를 앞둔 만큼, 도는 AI·로봇 핵심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 활용을 묶은 ‘농건설기계 AX’로 자율작업 기계 상용화를 뒷받침한다. 1,066억 원 규모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실환경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광역연계형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2030년부터 무인 자율농기계 실증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자율시스템을 검증할 무대도 넓다. 새만금에서 육성해 온 상용차 자율주행



지난 1월 26일 배경훈 부총리 전북 AX산업 사전검증성과 현장방문 <사진=전북도>

기술이 실제 도로 환경의 물류 서비스로 구현되는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달 9일에는 군산 특송화물 통관장에서 한진 전주터미널을 거쳐 대전 메가허브까지 이어지는 편도 118km 구간에서 국내 최초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이어 올해 5월 국토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유상운송 허가를 확보한 결과다. 조선은 AX실증산단과 군산조선소 대상 MAX 실증플랫폼으로 스마트조선소·해양무인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

또 총 7,367억 원 규모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국비 5,150억 원 이내 규모 공모에 들어갔고, 완주에 공동연구개발센터와 실증 메타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가 건립된다. 도는 앞서 전북대와 카이스트에 기술실증센터를 구축해 도내 3개 기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고, 올해 국비 766억 원을 확보했다. 피지컬AI 혁신캠퍼스까지 더해지면 기술개발부터 실증·인재양성·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지원체계가 갖춰진다.

/정정철 기자

김의겸, ‘아이디어·데이터 탈취’ 손해배상 강화

물건 넘어 서비스까지 적용
사용대가 기준 손해액 산정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이 보다 합리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두고 있으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의겸 의원

또한 침해가 없었다면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사용대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대

상도 확대한

다. 기존 상표 등 표지와 영업비밀뿐 아니라 스거래과정에서 제공된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스테이터△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사용도 손해액 산정 대상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 기준을 현행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비해 다른 손해액 산정 규정과 기준을 통일하고, 거래 선례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아이디어나 초기 기술의 가치를 손해액에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품 판매뿐 아니라 서비스·데이터·아이디어의 중요성이 커진 산업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기업들이 아이디어 탈취나 데이터 무단사용 등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데이터, 아이디어 자체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됐지만 손해배상 제도는 여전히 물건 거래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성과를 빼앗긴 고도 손해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산업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친청계 반발

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의결
최민희·이성윤·한민수 회의 불참
“당대표 권한”vs“당헌 위반” 충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청년몹에 전용기 의원, 노동 몹에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 위원장을 선임하는 인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임에 대해서 친 정청래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강원 강릉 시청에서 열린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26조 3항 따라 김민석 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인준을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당무위원회에 (인준)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의결 과정에서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의결했다”며 “세 분의 최고위원은 사전에 설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나갔다”고 전했다.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단일집단 지

도 체제에서 당대표 리더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대표의 고유권한으로 준 것”이라며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지명은 당대표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 지명에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전략지역 등을 지정했어야 했는데 이를 위반했다.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 의원과 권위원장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추가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전략기획위원회장 김원이

의원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이정현 의원 △국민소통위원장 장철민 의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을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임명했다.

또 △정책위 수석 부의장(경제) 민병덕 의원 △정책위 수석 부의장(사회) 허영 의원 △정책위 상임부의장 허성무·박희승 의원 △윤리감찰단장 김기표 의원 △교육연수원장 김현 의원 △당대표 특보단장 최재성 전 의원·김기홍 의원 △총선준비종합상황실장 윤종균 의원 △당대표 정부조정실장 강위원 전 전남 경제부지사도 각각 임명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해수욕장 33만명 찾았다…‘무사고 폐장’

전북도는 도내 8개 해수욕장이 지난 18일 모두 폐장한 가운데, 올해를 33만 7,470명이 해수욕장을 찾았으며 개장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올해를 장기간 이어진 폭염 속에서 이용객과 안전관리요원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두고 현장점검과 폭염 대응을 강화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자체 점검반을 운영해 도내 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총 34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평일에는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주말

과 연휴에는 불시점검을 병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했다. 점검 횟수도 지난해보다 21회 확대했다.

특히 안전시설과 장비 관리상태를 비롯해 안전관리요원 131명의 배치·운영 상황, 폭염 대응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안전관리요원의 건강상태와 이용객 운영질환 발생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백사장에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노약자와 어린이 등 이용객을 위한 임시 쉼터를 운영했으며, 응급의약품을 비치하는 등 폭염에 대비한 현장 조치도 강화했다. 이러한 안전관리와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 도내 해수욕장에서는 개장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도내 8개 해수욕장 이용객은 총 33만7,4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6

8개소 18일 폐장…안전사고 0
방문객 전년比 8.1% 감소
선유도 18만명 방문 122.8%↑

가했다. 올해 선유도해수욕장에는 18만 2,035명이 방문해 지난해 8만1,692명보다 122.8% 늘었다.

도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방문객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한다.

오는 9월 13일까지 안전관리요원을 추가 배치해 현장 순찰과 입수 위험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형삼 전북도 해양항만과장은 “폐장 이후에도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법

1 사용 전 주의사항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누전차단기는 정기적으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전기 설비를 정비하거나 보수 할 때는 전원을 철저히 차단한다.



어린이 감전 예방
어린이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콘센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커버를 생활화하고, 멀티탭이나 전선 등은 가급적 아이 눈에 띄지 않도록 정리한다.

3 전기 시설물 주의
장마나 호우로 비가 오는 날에는 가리의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포함한 야간 조명기, 입간판 등 전기 시설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감전재해란?

사람이 전류에 접촉해 신체에 전기충격을 받는 재해를 의미한다.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장애를 초래할수있으며 근육수축이나 의식상실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

전북 ‘J-피움’ 벤처투자플랫폼 거점 구축

전북도-전북TP 선순환 기업투자생태계 주력 도내 유망기업 실질적 투자성과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을 대한민국 대표 지역 벤처투자 거점 육성 위한 ‘J-피움(J-PIUM)’ 중심 △유망기업 △투자기관 간 실질적인 투자 연계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 벤처투자, 금융권, 앵커기업, 대학, 투자기관 및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과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식 × 전북 벤처투자플랫폼 J-피움’ 행사를 개최했다.

J-피움(J-PIUM)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도내·외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기관과 연계해 전북의 지속적인 투자 풀(Pool·Deal Pipeline) 확보 위한 전북 대표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나아가 벤처투자플랫폼은 유망기업 발굴→IR 역량 강화→투자자 매칭→투

자유치→후속 성장지원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투자자 간 지속적인 투자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사는 1036억원 규모 전북 지역성장펀드 출범과 J-피움을 활용한 지역 투자재원과 유망기업을 연결해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 및 정책 발표, 2부 △J-피움 유망기업 IR 및 1:1 투자 밋업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행사 2부 J-피움을 통해 도내 유망 창업기업 40여 개사와 국내 주요 VC 등 50여개 투자사가 모여 기업 IR과 1:1 투자상담하며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기업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투자계획 등을 투자사와 공유하고 기업별 투자수요에 맞춘 1:1 밀착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전북도-전북TP는 이후에도 참여기업과 투자자 간 후속 밋업과 투자 검토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전북TP는 이날 함께 결성된 1036억원 규모 전북 지역성장펀드를 비롯한 지역 투자재원과 국내 주요 VC·AC 연계를 강화해 J-피움에서 발굴된 유망기업이 실제 투자와 후속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북형 벤처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J-피움을 적극 활용해 전북 유망기업과 투자자 간의 실질적인 벤처투자 플랫폼을 이루겠다”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투자자를 연결해 후속 투자까지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전북테크노파크>

그러면서 “이번 지역성장펀드 결성을 계기로 전북의 투자재원이 한층 확대된 만큼 기업 성장에 투자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선순환 투자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전북TP는 앞으로 J-피움 중심으로 한 △도내·외 유망기업 발굴 △투자기관 매칭 및 후속 투자유치를 지속 지원해 전북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벤처투자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 지역성장펀드’ 전북은행 150억원 참여

금융권 출자기관 중 가장 큰 규모… 지역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앞장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150억원 참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지난 20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자치도,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지역 지자체, 금융권, 투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1부 펀드 결성식과 2부 유망기업 IR 플랫폼 ‘J-피움’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 지역성장펀드’는 정부 모태펀드(611억원)에 전북자치도와 정읍·김제·익산 등 지자체, 전북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 등 금융권, 현대자동차, 원광대학교 등이 함께 참여해 총 1036억원 규모로 결성 예정이다.

전북은행은 이 중 150억원을 참여 예정으로 금융권 출자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이 펀드는 2026년부터 2038년까지 12년간 운용되며, 조성액의 80%(약 800억원) 이상을 도내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 예정이다.

향후 모펀드를 마중물 삼아 약 18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지역 유망기업의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몽골서 홍수·가뭄 영향 정보 플랫폼 소개

국제연합사막화방지 협약 참여… 가뭄 대응 온라인도구 등록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몽골 울란바타르 제17차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COP17)에 참석해 우리나라 가뭄·홍수 대응 농업기술을 국제사회에 선보이고 글로벌 기후변화 협력 확대에 나섰다.

몽골 울란바타르 제17차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은 총회 기간

중 공식 부대행사를 직접 주최하고, 미국 텍사스 에이 앤 엠(Texas A&M) 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홍수·가뭄 영향 정보 플랫폼 ‘와이즈(WISE)’를 대표단에 소개했다.

부대행사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전상민 박사가 개발 성과와 서비스 현황을 발표하고, 텍사스 에이앤엠(Texas A&M) 대학교 정재학 교수가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시연했다.

이어 미국 네브래스카대 마크 스코보다 교수, 태국 아시아공과대 히만수 교수, 한경국립대 남원호 교수가 현장 적용성과 정책 활용, 국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와이즈 플랫폼을 국제

연합사막화방지협약의 온라인 가뭄 도구 상자(Drought Toolbox)에 공식 등록·탑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나라별 가뭄 관리, 기후변화 영향 예측, 취약성 평가와 위험 완화 우수사례 등 한국의 첨단 농업 데이터의 국제적 활용에 협력할 계획이다.

총회장 내에 마련된 ‘창원 이니셔티브 파빌리온’ 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에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대응 연구 성과와 국제협력 활동도 소개했다.

또 산림청과는 농업과 산림 분야를 잇는 ‘농업-산림 융합형 기후변화 대응 공동 협력 사업’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정소민 기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소정미 회장 ‘전북 유치’ 소리 높여

인구감소·지역경제침체 극복 ‘국가적 결단’ 촉구

전북지역 여성경제인단체가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북 유치 촉구’의 소리를 높였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에 실질적인 기회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적 결단을 강조한 소정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부장은 공공기관 전북유치 촉구 캠페인을 지난 21일 펼쳤다.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부소 회장의 공공기관 전북 유치 촉구 캠페인은 전북지역경제활성화 염원을 목적으로 둔 캠페인으로서 협회의 자율적인 추진 속에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부 공공기관 전북유치 주요 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으로 △지역기업과 지역



소정미 회장

인재 함께 성장 △지역기업과의 구매·계약·연구개발·인재 채용 확대 △국민연금공단 중심 금융산업 기반과 농생명·바이오산업 △새만금 중심 미래첨단산업 성장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 거점을 품고 있다.

이날 소정미 회장은 현재 전북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청년층 유출 △일자리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어 지역 기업을 일구고 일자리를 지켜온 중소기업과 여성기업들은 내수수부진 △판로 부족 △인력난 어려움까지

감당하는 위기 실정으로 설명했다.

관련해 소 회장은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인구가 늘어나 지역 내 소비와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기업과의 구매·계약·연구개발·인재 채용을 적극 확대한다면 여성기업을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 성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소 회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기업과 지역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일자리·경제적 기회를 지역에 고르게 배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현실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이전기관 선정과 지역 배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소 회장은 공공기관 이전성과

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도, 산업·경제 여건, 기존 공공기관 이전 성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정미 회장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에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전북 유치는 여성기업과 지역기업 새로운 판로를 열고, 청년과 여성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미래를 만들어 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북 여성기업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주요 공공기관 전북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도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사회와 뜻을 함께해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농협>

한국새농민 전북도회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화합 도모·자금심 고취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회원 간 화합 도모와 자금심 고취 시간을 가졌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과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한강희)는 지난 21일 장수군종합실내체육관에서 ‘2026년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한마음 전진대회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전북특별자치도 새농민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 소통을 통해 결속을 다지는 등 전북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의원 및 장수군, 장수군의회 관계자, 새농민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우수회원 표창, 사랑의쌀 전달, 장수군수 새농민 명예회원패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또 새농민 회원 노래경연을 통해 일상의 영농활동에서 잠시 벗어나 회원 간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등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금심을 높이는 시간을 보냈다.

김성훈 본부장은 “우리 전북농협은 오랜 시간 농업 현장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새농민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북농협 또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드높이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강희 회장은 “모처럼 많은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농민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근간을 지키며 새로운 농농기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우리 회원들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경진원>

경진원 ‘마을기업 설립 입문 교육’ 실시

내달 10일까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가 내년도 ‘마을기업 지정 희망 지역 공동체’ 위한 ‘마을기업 설립 전(입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준비하는 공동체에 기초 개념과 설립 절차 등 핵심 정보를 안내하는 입문 과정이다.

교육 참가는 내달 28일 예정이며 희망하는 공동체는 내달 10일까지 관할 각 시·군청 마을기업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

해서는 공동체 회원 5인 이상이 7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본 교육은 올해 실시되는 마지막 설립 전 과정으로 이번 회차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내년 교육에 참여해야만 마을기업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신규 지정을 준비 중인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129개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든든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사회경제체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제36대 전북조달청장에 신임 김종화 청장 취임

전북지방조달청 제36대 청장에 신임 김종화 청장이 지난 21일 취임했다.

신임 김종화 청장은 전주 출신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조달청 해외물자과장과 공정평가관리팀장 등을 거치며 품질관리, 계약·평가업무 등 조달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김종화 제36대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전북지방조달청 개청 이래 최초의 여성 청장이다.

신임 김종화 청장은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김종화 청장

김종화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취임 후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도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공공조달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먼저 찾아가겠다”며 “내부 직원들과 도 격의 없는 소통으로 전북 지역 기업과 도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달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 중앙아시아에 학생 파견… 교육·문화 교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생 160여 명과 소통

전북대학교가 하계방학을 맞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학생 44명을 파견해 현지 학생 16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교류 활동을 펼쳤다.

전북대 국제화역량활동단은 키르기스스탄 아라비예브국립대와 비슈케크 세종학당,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제107학교에서 활동을 진행했다. 양국에 각각 22명씩 파견된 학생들은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태권도, 전통놀이, K-POP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지도했다.

활동단은 현지 대한민국대사관과 한국 교육원, 세종학당 등을 방문해 전북대의 교육 환경과 유학생 지원·장학 제도를 안내하며 유학생 유지 활동도 병행했다.

전북대는 지난 21일 교내 학생타운에서 ‘2026학년도 하계 국제화역량활동단 결과발표회’를 열고 현지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협력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가 하계방학을 맞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학생 44명을 파견해 현지 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교류 활동을 펼쳤다. <사진=전북대>

전북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본격화

40개 거점교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이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도내 40개 거점학교에서 ‘2026학년도 2학기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지난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동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1,122명이 참여한다.

개설 강좌는 고급 대수, 물리학 실험 등 오프라인 67개와 온라인 27개를 포함해 총 94개다. 지난 1학기보다 강좌 수는 17개(22%), 수강 학생

수는 126명(12%)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28개, 군산 12개, 익산 12개 강좌가 운영된다. 특히 김제여고와 상산고 등 8개 학교가 거점학교로 신규 참여하며, 기존에 개설되지 않았던 김제·원주 권역에도 강좌가 신설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였다.

전호성 교육감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수강할 수 있도록 학교 간 연계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 N팀 전력 보강

준프로 계약 포함 4명 영입

전북현대모터스FC가 산하 유스팀(U18 전주영생고) 유망주 3명을 포함한 4명의 선수를 영입해 N팀 전력 보강에 나섰다.

전북현대에는 중앙 수비수 한재빈을 영입하고, 전주영생고 소속 구교빈, 김태영, 한승민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대학 무대를 거친 한재빈은 광문고와 선문대 출신 중앙 수비수 겸 수비형 미드필더다.

대인 수비와 공중볼 경험, 커버 플레이가 강점이며 2026년 U21 축구 국가대표팀 국내 소집훈련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기량을 입증했다.

준프로 계약을 맺은 3명은 영생고 주축

자원들이다. 3학년 공격형 미드필더 구교빈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공수 가담 능력이 돋보인다.

측면 수비수 김태영은 안정적인 탈압박과 빌드업을 겸비한 멀티 자원으로 평가 받는다.

2학년 수비형 미드필더 한승민은 뛰어난 패스 차단과 위치 선정 능력을 갖췄다.

올해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영생고의 우승을 이끌며 ‘베스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전북현대 이도현 단장은 “합류한 선수들이 N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잠재력을 끌어올려 향후 1군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하반기 참가자 모집 배드민턴·보치아 등 체험

익산시와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따뜻한 체육 문화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장애인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2026 드림패럴림픽’ 하반기 프로그램

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드림패럴림픽’은 비장애인 학생과 일반 시민이 장애인체육 종목에 직접 경험하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배드민턴과 골볼, 보치아 등 3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각 종목의 경기 규칙을 배우고 직접 경기를 치르며 장애인스포츠의 매력과 특성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과 시민은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우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주필 시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체험이 장애인스포츠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길 위의 인문학’ 운영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재)부안군문화재단(대표이사 정대경)은 부안의 환경·산업·역사·민속 자원을 연계해 지역의 인문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는 2026 길 위의 인문학 ‘세대를 잇는 부안 인문학 여정’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안의 다양한 인문자원을 매개로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지역의 이야기를 배우고 경험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한 강연 중심에서 벗어나 강자와 체험, 현장 탐방 등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부안의 자연과 역사, 문화적 특색을 주제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회차: 풍어와 안전, 간절함의 공동

체 위로 따뭇놀이 인문학 강의 △2회차: 햇빛과 시간이 만들어 낸 꽃 곰소 염전 현장 체험 △3회차: 부안 야생차와 함께 하는 차담 인문학 △4회차: 다류멘터리 영화 ‘수라’ 감상 및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만나보는 ‘생명의 순환 부안 갯벌’ △5회차: 부안의 역사인문학 ‘부안의 만석꾼을 찾아서’ 유적지 현장 탐방 등 강연과 체험, 탐방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부안군민은 물론 부안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체 프로그램 중 원하는 회차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부안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안 곳곳에 담긴 역사와 문화, 자연의 가치를 주민들과 함께 발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군산문화예술교육’ 참여 예술인 모집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이 군산 고유의 문화와 역사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씨알(art)심기’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참여할 예술인을 모집한다.

‘씨알(art)심기’는 군산이라는 토양 위에 문화예술(art)의 씨앗을 심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예술의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군산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해진 커리큘럼에 맞춘 강사 섭외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 단계부터 지역 예술인이 직접 군산의 문화·역사·삶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군산만의 특색이 담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참여 예술인 모집 기간은 오는 지난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지역 전문예술인 및 문화예술교육사 총 5명이다.

선정된 예술인에게에는 연구 수당, 강사료, 교육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일체와 함께 홍보 및 기록(아카이빙)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내달 중 집중 연구·개발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 예술인의 창의적인 시선과 군산의 풍부한 자원이 만날 때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예술교육이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양식은 군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군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팀으로 하면 된다.

군산대 앵커사업단 ‘탄소중립 인턴십’ 성과 공유

국립군산대학교 ANCHOR(앵커)사업단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탄소중립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험실 인턴십 성과 워크숍’을 열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탄소중립 전문가 과정에 참여한 화학공학과 학생과 지도교수, 연구조교 등 36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인턴십 기간 수행한 탄소중립 소재 개발 및 성능 분석 등 전공 기반 연구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현장 견학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플라즈마 기술의 산업 활용 사례와 연구 동향을 살펴며 전공 지식의 현장 적용 과정을



<사진=군산대>

확인했다.

심종표 화학공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역량을 확장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실험과 연구 중심 교육을 강화해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탄소중립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강력한 엘니뇨의 경고: 역대급 폭염 속 ‘나’를 지키는 법

엘니뇨?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상승하는 기상 현상

기상청은 올해 강력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훨씬 뜨거운 여름이 올 것을 예보하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 대비, ‘물·그늘·휴식’과
‘정보 확인’이 핵심입니다.**

더 길고 뜨거워진 한반도의 여름

지난 30년간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1.6℃ 상승했으며,
여름 길이는 20일이나
길어졌습니다.

가장 뜨거운 낮 시간대 활동 자제

폭염 특보 시
낮 12시~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멈추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세요.

물 자주 마시고 수시로 정보 확인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기상청 앱을 통해
실시간 폭염 특보를
확인하십시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이형한국화회 단체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25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장미갤러리 2층에서 이형한국화회 단체전 ‘존재와 사유’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사유를 회화적 언어로 풀어냈으며,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자연물과 대상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한국화 작품 19점을 선보인다.

이형한국화회는 ‘이형사신(以形寫神)’에 내재된 회화론을 바탕으로 각 화원이 바라보는 대상의 형상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정신적 본질과 생명성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형사신(以形寫神)’은 ‘형상을 통해 정신을 그려낸다’는 의미로, 눈에 보이는 대상의 형상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형한국화회 회원들의 작품 속에서 무심코 지나친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삶과 존재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는 바탕이 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무심코 지나쳤던 대상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삶 속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작품 감상을 통해 다시금 되새겨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신규 공무원 소통간담회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9일 지난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14명과 식사를 함께하며 조직생활의 어려움과 업무환경 개선 의견을 들었다.

정읍시는 이날 신규 공무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세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장과 식사를 하며 공식생활을 시작한 뒤 느낀 점과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조직문화와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공무원들의 참신한 제안도 이어졌다. 시는 민선 8기부터 시장과 신규 공무원이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민선 9기에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시정과 조직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시범 운영… 학습자 모집

익산시가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권 곳곳으로 배움의 기회를 넓힌다.

익산시는 금마면·춘포면·마동 3곳에 ‘읍면동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25일부터 프로그램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읍면동평생학습센터는 지역 주민이 직접 학습 수요를 발굴하고 의견을 모아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 거점이다. 지역 내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센터에는 학습매니저(활동가)가 배치돼 평생학습 정보 제공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문해 등을 지원한다.

강좌는 지역별 주민 수요를 반영해 다양하게 구성됐다.

학습자는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모집하며, 익산시평생학습관 누리집의 ‘수강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정읍, 생활 편의 강화 2(題)

익산 황등면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익산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황등면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 8000만 원이 투입되며, 황등로 160 일원부터 황등중학교 일대까지 약 800m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한다.

공사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10월 말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23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공급관이 설치되면 대상 세대뿐 아니라 향후 인근 지역

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익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86.77%다. 시는 아직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남아 있는 만큼 공급 여건과 주민 수요,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용범 경제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출입 개선

아파트 출입 통제로 단지 입구에서 승객을 내려줘야 했던 정읍 장애인콜택시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읍시는 지난 18일 지역 주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관리소장들과 면담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의 상시 출입 등록을 요청했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 장애인콜택시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걷기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가 단지 입구에서 내려 아파트 동까지 이동해

야 했다. 이동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시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들은 장애인콜택시 출입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아파트는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전체 차량을 사전에 등록해 단지 출입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확대되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단지 입구가 아닌 아파트 동 앞에서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4대 종교 문화유산 잇는 가을여행”

채류형 관광 ‘성지해움길’ 참가자 선착순 모집

익산의 4대 종교 문화유산을 따라 걸으며 가을의 정취와 쉼을 함께 누리는 특별한 여행이 찾아온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2026년 하반기 성지해움길 : 다이로운 익산여행’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성지해움길 :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원불교·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익산에 자리한 4대 종교 유산과 주요 관광자원을 연결한 1박 2일 채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하반기 여행은 오는 10월 2일부터 31

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일정으로 총 5회 운영된다.

여행은 익산역에서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원불교 익산성지 △아가페정원 △황등석산 전망대 △심곡사 △두동교회 구분당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익산의 종교문화와 역사, 자연을 폭넓게 경험한다.

특히 원불교 익산성지를 비롯해 보물금동불감 등이 출토된 심곡사, ‘ㄷ’자 형태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간직한 두동교회 구분당,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 역사 등을 담은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 등 4대 종교의 발자취를 해설과 함께 살펴본다.

종교문화유산뿐 아니라 익산의 다양한 관광 명소도 일정에 담았다.

아가페정원과 황등석산 전망대,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익산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명상과 차담 등 체험 프로그램을 더해 여행객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도 마련한다.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김재준 시장, 현대차 투자 연계 등 집중 건의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2027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고용진 국회의원사무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국회 단계 지원 방안과 지역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군산시가 중점 건의한 사업은 △현대차 투자 협력사업 △새만금 물류 3대 인프라 △미래첨단 전략산업 육성 △지역 관심사업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조 6,232억 원 규모이다.

먼저 현대차그룹의 약 9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를 실질적인 기업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이어가기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 로봇 부품 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 건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설,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은 현대차 투자부지 40만㎡를 확보해 기업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현대차그룹의 투자 안착은 물론 협력기업의 조기 입주와 로봇·피치컬AI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했다.

새만금의 경쟁력을 좌우할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신항만 조성 등 육·해·공 물류체계를 완성할 물류 3대 인프라의 속도감 있는 구축을 당부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지원센터 구축, 하이퍼트브 핵심기술 개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 등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정부예산안 확정과 국회 심의를 앞둔 지금이 군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가 협력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확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주민배심원제’ 가동

“시민 체감 공약 이행”

정읍시가 민선9기 공약의 실행계획과 조정 필요성을 시민 눈높이에서 살피기 주민배심원 35명을 위촉했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9기 공약사업 주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배심원제는 시민이 공약사업의 추진계획과 이행과정을 직접 살피고, 여건 변화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행정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약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은 뒤 전화면접을 진행했다. 시 누리집을 통한 시민 신청도 함께 받아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35명을 최종 선정했다.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주민배심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위원들은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볼 조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심의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배심원 회의는 지난 21일과 오는 28일, 내달 11일 등 모두 세 차례 열린다. 오는 28일 2차 회의에서는 공약 담당부서가 조별 심의 안건과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한다. 배심원들은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공약 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내달 11일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토론과 전체 투표를 진행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 시는 주민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과 권고안을 검토해 민선9기 공약사업에 반영하고,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유호연 부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추진과정을 시민과 함께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심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익산소방서(서장 소철환)는 최근 발생한 전주 농수산물시장 화재를 계기로 다수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약 4주간 화재안전 합동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노후 전기시설과 가연물 적치 등 전통시장의 구조적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익산 관내에서는 익산중앙시장, 북부시장,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 13개소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합동조사반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 및 통로의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문어발식 콘센트나 비규격 멀티탭 사용 등 전기 화재를 유발



하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관계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익산소방서는 점검 결과 도출된 불합사항에 대해 오는 추석 명절 전에 보완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시정 명령을 병행할 계획이다.

소철환 익산소방서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돼 있어 작은 화재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시범 운영… 내달 본격 시행

군산시가 카카오톡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는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보완작업을 점검한 뒤, 내달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우편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알림톡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단속 대상자에게 전송되며, 운전자는 수신된 알림톡에서 본인 인증 후 부과 내역과 단속 사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단,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이나 모바일 고지 미확인자의 불이익을 예

방하기 위해 전자고지를 수신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기존처럼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진술 대상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종이 고지서는 주소 불일치나 우편물 분실, 등기우편 미수령 등으로 고지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번 카카오톡 전자고지 도입으로 고지서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 비용 절감과 종이 사용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나홀간 ‘을지연습’ 종료

무인기 테러·공습 대응 점검

정읍시가 자폭형 무인기 테러와 공습 등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해 나홀간 안 진행한 ‘2026 을지연습’을 마무리했다.

연습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종합상황실 운영과 전시 조직 편성, 전시에 새로 설치되는 기구의 운영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기관의 주요 인력과 장비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훈련도 실시했다. 전시 현안과제를 토의하고 상황별 대응 절차를 서무와 지도로 점검하는 도상연습을 통해 비상행정체계 전반을 살폈다.

제2청사에서는 자폭형 무인기 테러 상황을 가정한 실제훈련이 펼쳐졌다. 훈련에는 정읍시와 정읍경찰서, 전

북경찰특공대, 8098부대 3대대, 35사단 EHCT, 6탄약창 EOD, 화생방대대 CRST, 정읍소방서가 참여했다.

각 기관은 현장을 통제하고 무인기 조종자를 수색했다. 자폭형 무인기에 설치된 폭발물을 확인·제거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판별하는 한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까지 실제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를 수행했다.

특수 대비 주민대피훈련과 긴급차량길 터주 훈련도 진행했다. 시민들에게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의 행동요령과 대피 방법, 소방차와 급급차가 접근할 때의 양보요령 요령을 알렸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연습을 통해 관계기관의 역할과 현장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훈련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충무계획과 대응 절차에 반영해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내달 14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오늘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중앙정부의 5대 국정기조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군산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기본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군산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 모두의 행복을 증진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번 공모에는 기본사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돌봄·주거·교육·일자리 등 기본사회 9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자유로운 제안이 가능한 기타 분야까지 포함한다.

시상 규모는 총 300만 원이다. 최우수상 1건 100만 원, 우수상 2건 각 50만 원, 장려상 5건 각 20만 원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군, 정책·사업 성과 ‘두각’ 2(題)

어르신 스포츠강좌 공모 선정 국비 3억 확보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연간 1억 원씩 3년간 총 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군은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인구 증가에 발맞춰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체육 활동 기회를 넓히고자 추진한다. 지정 스포츠클럽인 완주 스포츠클럽과 전북풋볼아카데미가 운용을 맡아 탁구, 태권, 배드민턴, 축구, 풋살, 건강운동 등 다양한 종목을 마련한다.

전문 강사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도입해 어르신들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가까운 곳에서 누구

나 편리하게 운동을 즐기도록 돕는다.

개인 참여 뿐 만 아니라 기존 생활체육 동호회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체육 활동 기반도 구축한다.

하반기에는 어르신 시니어 체육대회를 열어 강습으로 익힌 기량을 겨루고 참가자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 사회적 고립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사업성과와 참여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2027년과 2028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AI 정책 제안서 최다 제출 ‘씩쓸이’ 수상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한 ‘2026년 도민·공무원 인공지능(AI) 테마제안 공모’ 공무원 제안 분야에서 최우수상 2건과 우수상 1건을 휩쓰는 성과를 거뒀다.

공무원 제안 부문에서 최종 선정된 7건의 수상작 가운데 완주군이 3건을 독식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완주군의 시책 발굴 역량과 독보적인 정책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우수상에는 구학준 농업정책과 주무관의 ‘인공지능(AI)·드론 통합 관제 기반 스카이 파밍 구축’과 이종훈 농촌지원과 지도사의 ‘농업인 단체 주도 인공지능(AI) 드론 자율방제단 운영’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김응수 상하수도사업소 주무관의 ‘폐지컬 AI 활용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말로 하는

인터넷’ 제안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완주군은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101건의 제안을 제출해 행정 혁신을 향한 열의를 입증했다.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농업, 주민복지 등 현장 행정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정책 아이디어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군은 우수 제안을 검토해 행정 전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혁신 정책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직원들의 실효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정책 제안 공모’를 추진해, 이달 말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정책화해나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햇빛소득 확대 제도개선 건의

기본소득 우수사례 정부 공유 군 햇빛소득 조성 관련 개정 제안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순창군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중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전국 17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 군수는 ‘기본소득이 사람을 잇고, 사람이 농촌을 다시 움직인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주민 주도형 지역순환 경제 모델을 소개했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주민 소비가 지역 상권 매출 증가와 생활서비스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등면 ‘순창곶간’과 풍산면 ‘풍구장터’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실제로, 주민과 지역 생산자, 소상공

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결해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와 수익이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군수는 이날 기본소득 성과 공유와 함께 순창군이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100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군은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제방, 주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면 햇빛소득마을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사용가능 부지와 수의계약, 허가기간, 사용료 등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군수는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의 수상·제방과 주변 유휴부지를 지자체 주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저수지 수상형 태양광 설



<사진=순창군>

치 가능 면적을 만수면적의 20% 이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형·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용허가 계약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군은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기반이 확대되고, 지역 에너지 자립은 물론 새로운 농촌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농촌 빈집·유휴자원 귀농귀촌 ‘새 둥지’

빈집·농지·하우스 등 전수조사 주거·영농 수요 맞춤형 연계 추진

남원시가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유휴농지, 유휴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촌지역에 흩어져 있는 빈집과 유휴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매매 등의 거래 및 활용의 향까지 면밀히 조사해 체계적인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농촌지역의 빈집을 비롯해 유휴농지와 하우스, 축사, 과원 등이다. 남원시는 해당 자원의 소재지와 소유자 현황, 임대 또는 매매 의향 등을 파악해 활용 가능한 유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유휴자원 정보는 귀농귀촌 맞춤형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주거와 영농 기반을 찾는 귀농귀촌인

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 내 유휴자원을 새로운 정착 기반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빈집과 유휴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보금자리와 일터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해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삼봉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

상인회·행정 소통으로 지정 결실 공모사업 신청 등 지원 기반 마련

완주군의회 이진영 운영위원장이 삼봉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회와 꾸준히 소통해 온 가운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지며 마침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고 상인들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권을 지정하는 제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을 받을



이진영 위원장

이에 따라 삼봉지구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관련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해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영 운영위원장은 “삼봉지구 상인들과 꾸준히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상인회와 관련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협조가 더해져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된 만큼 그동안 노력해 주신 완주군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끝이 아니라 삼봉지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를 비롯해 공동 마케팅과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이 상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그랑드림’ 위기 선제 발굴

읍면동 직원 직접 방문 전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남원시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나 식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능동적 복지 지원인 ‘찾아가는 그랑드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그랑드림’ 사업은 매주 화·수·목 오후 2시~5시 사이에 생계가 어려운 시민이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요천로 1531, 초록빌 1층)를 직접 방문해 긴급 먹거리 및 생필품을 지원받는 방식이었다. 시는 이러한 수동적 지원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고립·은둔 등으로 인해 직접 센터를 찾기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번 ‘찾아가는 그랑드림’을 도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들이 직접 위기 가정을 방문해 그랑드림 물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는 등 촘촘한 안부 확인을 병행하게 된다.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의 고통을 청취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양종모 남원시장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발을 동동 구르던 위기가구에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를 통한 방문형립·은둔 등으로 인해 직접 센터를 찾기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번 ‘찾아가는 그랑드림’을 도입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옥천장학회, 2026년 장학금 3,846만원 지원

일반·예체능 등 68명 선정

학원비 지원 등 분야 맞춤형

순창군이 최근 (재)순창군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군수)에서 순창군의 중·고등학교 68명에게 총 3,84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6월에 신청을 받아 총 72건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68명이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 재학생으로, △일반 장학금(고등학교 학업 우수자) △예·체능 특기생 △예·체능 학생들이 학업과 예·체능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고삐’

만수천 현장 찾아 정비상황 점검

정부방침에 따라 남원시는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물 정비에 여름 휴가철 기간 불법 상행위 단속과 병행 확대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장은 하천·계곡내 불법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산내면 만수천(뱀사골)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단속으로 불법시설물을 철거해 하천의 공공기능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진=남원시>

시민 및 상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불법시설물 정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하천을 지키고 아끼는 일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근 상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하이트 전주공장 명칭 ‘완주공장’ 변경해야”

성중기완주군의장 기업애로 청취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장이 지난 20일 완주군 용진읍에 소재한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을 찾아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과 기업의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성중기 의장을 비롯해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장과 회사 관계자, 완주군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하이트진로 측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주공장’의 명칭을 실제 소재지를 반영한 ‘완주공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은 완주군 용진읍에 위치해 있음에도 ‘전주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공장의 실제 소재지인 완주군의 지역 정체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한 완주에서 생산되는 기업 제품



성중기 의장

이 지역 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기업과 행정,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성 의장은 “지역 생산 제품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관내 기업과 지역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은 완주군에 자리 잡고 지역경제와 고용에 기여해 온 기업인 만큼 명칭 역시 실제 소재지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완주공장’으로의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고산서 무궁화축제

29일 개막…캠핑장 무료 개방

완주군이 나라꽃 무궁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의 상징성을 다지고자 오는 29일 고산문화공원 무궁화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제36회 나라꽃 무궁화 완주축제’를 연다.

산림청과 완주군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나라꽃의 품격, 무궁화 특별시 완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오전 10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무궁화 나눔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무궁화 화분 400분을 나누어 주며, 일대에서 나라꽃 무궁화를 가까이 접하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북도 무궁화 우수분화 68분이 전시되는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궁화 킥업 키링, 부채 만들기, 무궁화 볼펜 꾸미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 물놀이장이 운영되며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황금반지를 찾아라’ 보물찾기 등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전국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무궁화 그림대회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다. 대상에는 산림청장상, 금상에는 전북자치도지사상, 은상에는 전북교육감상, 동상에는 완주군수상, 장려상으로는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축제 전일과 당일인 28일과 29일에는 무궁화오토캠핑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오토캠핑장 81개와 카라반 8대로, 축제와 캠핑을 함께 즐기려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여름 나들이 기회를 제공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사랑의 광장서 28일부터

지리산 흥부골 포도축제

남원의 대표 특산물인 흥부골 포도의 맛과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6 지리산 흥부골 포도축제’가 지리산흥부골 포도작목회와 지리산농협 주최·주관,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후원으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열린다.

지리산 흥부골 포도는 해발 450m 내외의 준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돼 높은 당도를 자랑하며, 남원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지난해에 이어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에서 흥부골 포도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름철 남원의 대표 농특산물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축제 첫날인 28일 오후 7시에는 ‘지리산 흥부골 포도 산업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흥부골 포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알릴 예정이다.

축제장에서는 흥부골 포도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판매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과 먹거리·체험 부스 등을 운영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주민 대피·비상행동요령 교육

순창군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남양휴튼 아파트 일원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2026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공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 능력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남양휴튼 아파트 주민들은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계단을 이용해 지하대피소를 신속하게 대피했으며, 대피 후에는 화재예방 교육 및 소화기 사용법 등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훈련은 실제 공습 상황에서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훈련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군산 미성동 주민들, 서군산무료급식소에 백미 기부

군산시 미성동(동장 홍상훈)은 지난 21일 미성동 주민 채미옥(한국여성농업인 미성동 분회장)과 신은근(화흥마을 통장)이 백미 200kg을 서군산무료급식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에 꾸준히 참여해 온 두 사람은 직접 농사지는 쌀을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에 보태며 또 한 번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이날 쌀 기탁과 함께 미성동 통장단도 무료급식소를 찾아 식사 준비와 배식, 설거지 등 봉사 활동에 힘을 보탰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마다 서군산무료급식소 봉사를 이어온 미성동 통장단은 올해로 13년째 급식 봉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관내 환경 정화 활동에 앞장서는 등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탁에 참여한 신은근 통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분들이 든든한 한 끼를 드시고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임실 관촌사선대로터리클럽, 수박 화채 나눔 행사

임실군 관촌사선대로터리클럽(회장 장현수)은 지난 15일 관촌파출소 인근 쉼터에서 폭염에 지친 주민들과 취약계층, 행락객 등에게 여름철 수박 화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로터리클럽 회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수박 화채를 전달하며 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만끽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장현수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부안성황라이온스클럽, 얼음물 나눔 봉사활동

폭염에 지친 주민들에 시원한 생수로 위로 전해

부안성황라이온스클럽(회장 김창환)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전하기 위해 지난 21일 부안터미널 사거리 일원에서 대규모 얼음물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중심에는 김창환 회장을 비롯한 부안성황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회원들은 통행량이 집중되는 부

안터미널 사거리 내 투썸플레이스 앞과 프라자약국 앞 등 주요 거점 2개소에 부스를 마련하고, 오가는 보행자들에게 차갑게 얼린 생수를 직접 건넸다.

특히 길을 지나는 어르신들과 아이의 근로자들의 손을 잡고 폭염 속 건강 상태를 살피며 안부를 묻는 등 온기 넘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부안성황라이온스클럽의 활동은 그동안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쌓아온 폭넓고 진정성 있는 공헌 활동의 궤를 같이하며 더욱 주목을 받았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성황라이온스클럽은 지난 21일 부안터미널 사거리 일원에서 대규모 얼음물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한전MCS 남원지점, 독거 어르신에 LED 전등 설치

전등도 바꾸고 안부도 묻고

남원시 사매면행정복지센터는 한전MCS 남원지점이 지역 내 독거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리모컨 LED 전등을 설치하고 영양음료를 전달하는 현장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7월 한전MCS 남원지점과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가 사매면 내 취약계층 4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직접 어르신들의 가정을 찾아 생활 속 불편을 살피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MCS 남원지점 직원들은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노후 전등을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고효율 LED 전등으로 직접 교체·설치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영양음료를 전달하며 건강을 살피고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주원컴퍼니, 완주군에 워터페스티벌 티켓 기탁

(주)주원컴퍼니(대표 황주원)가 완주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대형 워터 페스티벌 입장권 400장을 기탁했다.

지난 20일 황주원 (주)주원컴퍼니 대표, 노동진 (주)리퍼니쳐(군산점) 대표 등 관계자들은 유희태 완주군수를 만나 2400만 원 상당의 ‘아마존 DJ 워터페스티벌’ 티켓을 전달했다.

페스티벌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완주군 구이면 아마존이쿠

아파크에서 열린다.

군은 기탁받은 티켓을 평소 문화·여가 활동을 접하기 어려웠던 관내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단체 이용자들에게 전달해 무더운 여름철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앞으로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완주군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 흥덕면,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고창군 흥덕면이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어르신 4가구를 방문해 보행보조기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이번 사업은 노인성 질환이나 질병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흥덕면은 소득 수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 거동 불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이 시급한 관내 차상위계층 어르신 4가구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흥덕면장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행보조기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 맞춤형 조작법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폭염 대비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속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삼례농협, 취약농가 대상 주거환경 개선 활동 실시

농협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와 삼례농협(조합장 강신학)은 최근 관내 고령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NH농촌현장봉사단’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NH농촌현장봉사단’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돌봄대상자 중, 노후화된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취약농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농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지원을 받은 농가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으로, NH농촌현장봉사단은 현장을 방문해 노후화된 도배를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농가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삼례농협 강신학 조합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어 뜻깊다. 앞으로도 농심천심(農心天心)의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 남중동 나눔 참여 잇따라 착한가게 2곳 동참

익산시 남중동에 지역 상인들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남중동은 21일 ‘북남정육점(대표 김주희)’과 ‘장수식품(대표 김호정)’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정기기부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후원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이번 북남정육점과 장수식품의 착한가게 가입으로 남중동 지역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게 됐다.

김주희 대표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어름칠 식중독

식중독 원인



충분한 가열없이
해산물, 육류
섭취



오랜시간 실온에
방치된 음식물
섭취



오염된 도마등
주방용품 사용



제대로 세척하지않는
채소류 섭취



〈一事一言〉



분열의 정치, 그들은 누구를 대변하는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국가와 전북의 미래를 바꿀 사업들이 전북을 외면하고 있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지역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백년대계를 세우야 할 중대한 대책 사업들에서 전북이 차례로 배제되고 소외당하는 '전북 패싱'의 냉혹한 현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타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며 예산과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동안, 우리 전북의 목소리는 중앙 무대에서 철저히 묻히고 있다. 도민들의 절망감과 위기감은 극에 달해 가는데, 정작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책임 있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중앙 무대에서 전북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고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그들은 국가 사업의 예산 확보나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막아낼 해법을 고민하는 대신, 눈앞의 공천권을 쥐기 위한 알팍한 선택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대변인들이 사익(私益)을 채우기 위한 '내 사람 심기'와 '줄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서글픈 풍경이 지금 전북 정가의 민낯이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지역의 먹거리 사업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영토를 지키기 위한 야합과 암투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어졌던 경선 규칙을 둘러싼 진통과 전북 국회의원들 간의 정면충돌은 이러한 지역 정치권의 타락과 기득권 전착을 고스란히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 공정성의 치명적인 훼손이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 경선 룰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반복과 진통을 거듭하는 모습은 당원과

도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줬다. 원칙과 기준이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 시장 바닥에서도 보기 힘든 '고무줄 물', '밀실 공천'이라는 비판이 도민들 사이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공당의 시스템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은 과연 이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을 품기 시작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전북 정치권의 고질적인 분열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지금 전북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사상 초유의 복합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원팀'이 되어 중앙 무대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절박한 기로에 서 있다. 단 하나의 예산, 단 하나의 대책 사업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뿔뿔 뿔쳐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전북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공천권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뜻하는 이진투구(泥田鬪狗) 양상을 보이며 스스로 지역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길을 택했다. 제 밤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사이, 중앙에서 전북 정치권의 위상과 협상력은 그야말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결국 이 참담한 권력 투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오롯이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정작 지역 발전을 이끌 민생 정책이나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을 따져보는 생산적인 인물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오직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느냐는 '경선 물' 쟁탈전과 불쌍사나운 '계파 싸움'으로만 도배되고 있다. 지역의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청년 유출 방지 같은 핵심 의제들은 실종되었고, 정치를 향한 도민들의 피로감과 냉소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번 충돌의 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

보면 그 본질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투명하다. 그들이 겉으로 앞세우는 '과거 이력 감점'이나 '공정한 검증'이라는 명분은 자신들의 사욕을 가리기 위한 그럴싸한 핑계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는 차기 지역 정가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하려는 현역 의원들 간의 치열한 세력 싸움이자, 공정성을 상실한 시스템이 불러온 예고된 파행일 뿐이다. 정당의 경선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재를 등용하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권력자의 하수인을 뽑는 사리사욕의 장으로 변질된 현실에 도민들은 깊은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전북 정치권을 향해 준엄하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그토록 당당하게 쥐고 흔드는 그 권력은 대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 자리는 사리사욕을 채우고, 제 사람들을 줄 세우며 호가호위하라고 도민들이 피땀 흘려 허락한 자리가 결코 아니다. 전북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도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국가의 미래 속에서 전북의 영토를 넓히려는 엄중한 명령의 자리다.

지금이라도 의원이라는 준엄한 이름값을 하라. 당장 눈앞의 불쌍사나운 계파 싸움과 줄 세우기를 멈추고, '전북 패싱'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믿고 선택해 준 도민의 삶을 위해 일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단숨에 뒤집을 수도 있다. 오만한 정치인들을 향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시간이 생각보다 머지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한방직 개발 특혜 논란, 조지훈 시장 첫 시험대

조지훈 전주시장의 첫 시험대인 대한방직 부지개발 논란에 전북도는 물론 청와대 등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수년 간 '특혜 시비' 논란에 휩싸였는데 차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업시행사인 ㈜자광에 대한 추가 특혜 중단 요구와 전주시의 원칙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정의당, 진보당 전북도당 등 7개 단체는 최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시행사 ㈜자광에 대한 추가 특혜를 중단하고 협약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특혜로 얼룩져 있으며 사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민간 개발업자인 ㈜자광의 재정 부실이다"고 성토했다는 점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시민사회는 ㈜자광이 예전부터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막대한 특혜를 누려왔다고 비판했

다. 단체들은 "㈜자광은 금융권 대주단으로부터 2024년 10월 EOD(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고, 개발부지 재산세 체납으로 전주시에 압류당하는 등 부실한 재무 상태를 드러냈는데 사업 시행 협약 취소 시점을 앞두고 또 다른 특혜를 전주시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형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자 협약서의 핵심인 '동시 착공, 동시 준공 원칙'을 '아파트 우선 분양 준공', 단계별 준공으로 변경하려고 전주시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주)자광은 전주시는 물론 65만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로 기업윤리에도 정면 배치된다.

무엇보다 이번 전주 대한방직 논란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조지훈 전주시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당선인 시절 "내 주변인을 통해 압박하지 말라"며 줄곧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한 원칙론을 앞세웠던 조 시장의 강한 리더십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 독자 투고 |

생명을 위한 양보, 119를 올바르게 이용할 때입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엔...?" 국민 진통제 광고의 대표 문구를 들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답이 있다. 그러나 매일 밤 붉은 경광등을 밝히려 도로를 달리는 소방관들의 머릿속에는 조금 다른 답이 떠오른다. 오늘 이 익숙한 광고 카피를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패러디해 본다.

"(단순) 감기, 치통, 주취엔? 맞다! 노(No) 119!" 위트 있게 들리는 이 한 문장 뒤에는 구급대원들의 절박한 현실이 담겨 있다.

어느 캄캄한 새벽, 119구급차 한 대가 빗길을 뚫고 긴급히 출동한다. 신고 내용은 뭘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구급대원들은 심장충격기와 산소 장비를 챙겨 계단을 뛰어오른다. 그러나 문을 열고 마주한 사람은 술에 취한 채 집까지 태워달라고 말하는 주취자였다.

같은 시각 불과 3km 떨어진 한 아파트에서는 60대 가정이 정수리에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쥔 채 흉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구급차는 이미 긴급하지 않은 신고로 출동해 있어 즉시 달려갈 수 없었다.

119구급차의 붉은 경광등은 생명을 지키기 위

한 경고등이다. 구급차 안의 산소호흡기와 심장 충격기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끝내기타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단순한 감기 증상이나 치통, 술에 취해 느끼는 불편함이 결코 가벼운 고통이라는 뜻은 아니다. 119구급대원들 역시 시민들의 아픔과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한정된 구급차와 인력으로 더 많은 생명을 지켜야 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통원, 가벼운 찰과상 등은 구급차보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아주시는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도착하더라도 진료 순서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 응급실은 도착 순서가 아니라 의료진이 판단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누른 세 자리 숫자가 누군가의 끝내기타임을 빼앗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작은 실천과 성숙한 배려가 오늘 밤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소중한 기적이 될 수 있다.

군산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장 이병생

▲ 오늘의 시

살아서 돌아온 자 / 박노해

진실은 사과나무와 같아
진실이 무르익는 시간이 있다
눈보라와 불벌과 폭풍우를
다 뚫고 나온 강인한 진실만이
향기로운 사과알로 붉게 빛나니
그러니 다 맞아라
눈을 뜨고 견뎌내라

고독하게 강인해라
거짓은 유통기한이 있다
음해와 비난은 한 철이다
절정에 달한 악은 실체를 드러낸다
그대 아는가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자는
그 존재만으로 저들의 공포인 것을
진실은 사과나무와 같아
진실한 사람의 상처 난 곁을마다
붉은 사과알이 향기롭게 익어오느니
자,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화/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발행부)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시 010-5242-38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실을 전하는 힘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부안군, 군민 복지욕구 반영 맞춤형 복지정책 설계 본격화

올해 총 1400억원 투입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부안군 사회복지과는 2026년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정책 설계에 본격 나섰다.

군은 올해 복지에산 총 1400억원을 투자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맞춤형 생활 보장,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 군민 체감도를 높이는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 주민 의견수렴 중장기 복지계획·촘촘한 인적 안전망 가동

부안군은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역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주민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노인·장애인·다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심층집단면접(FGI)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 1515 가구를 발굴해 총 1069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로 위험군 91명을 돌보고 있으며 부안우체국과 협력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 밀착형 불편을 해결하는 '부안군 행복드림반'은 을 상반기 동안 904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민원 처리율 100%를 초과 달성했다.

행복드림반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위해 소규모 집수리, 전기·보일러 점검 등을 즉각 지원해 군민 만족도를 극대화했다.

■ 부안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가동·맞춤형 생활 보장

부안군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부안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쇠나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돌봄, 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올해 목표인 640명 중 115건을 발굴해 도시락 배달, 주거환경 개선, 병원 이동 지원 등 패키지 서비스를 연계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는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상반기에만 122가구 163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8세대 34명에 대한 계속 보호를 결정했으며 지난해 생계·의료급여 중지자 263명을 전수 조사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 활기찬 노후 보장·공설 자연장지 본격 운영

노인복지 분야에는 전년 대비 39억원 증가한 2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31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돌봄 종사자 1인당 연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어르신들의 건강·여가를 위해 스마트경로당 40개소를 구축했으며 하반기 50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은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연 5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영양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종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해 하서면 장신리 일원에 조성한 공설 자연장지(4만 9095.7㎡ 규모)가 6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주민등록상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이면 이용 가능하며 타 지역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복지 강화...의료급여 신규 사업 확대

부안군은 장애인 자립을 위해 일자리 참여 인원을 110명으로 확대하고 도내 유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 운영을 지원해 32명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올해 초 호국보훈수당을 1만원 인상해 현재 905명에게 도내 최고 수준의 수당을 지급 중이다.

스마트 안전망도 강화된다. 의료급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스쿠터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7년 스마트빌리지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 다빈도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정신건강 검사와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 상반기 동안 정성껏 다져온 맞춤형 복지 성과와 부안형 통합돌봄 체계를 기반으로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겠다"며 "단 한 분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장 필요한 곳에 닿는 든든한 맞춤형 복지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